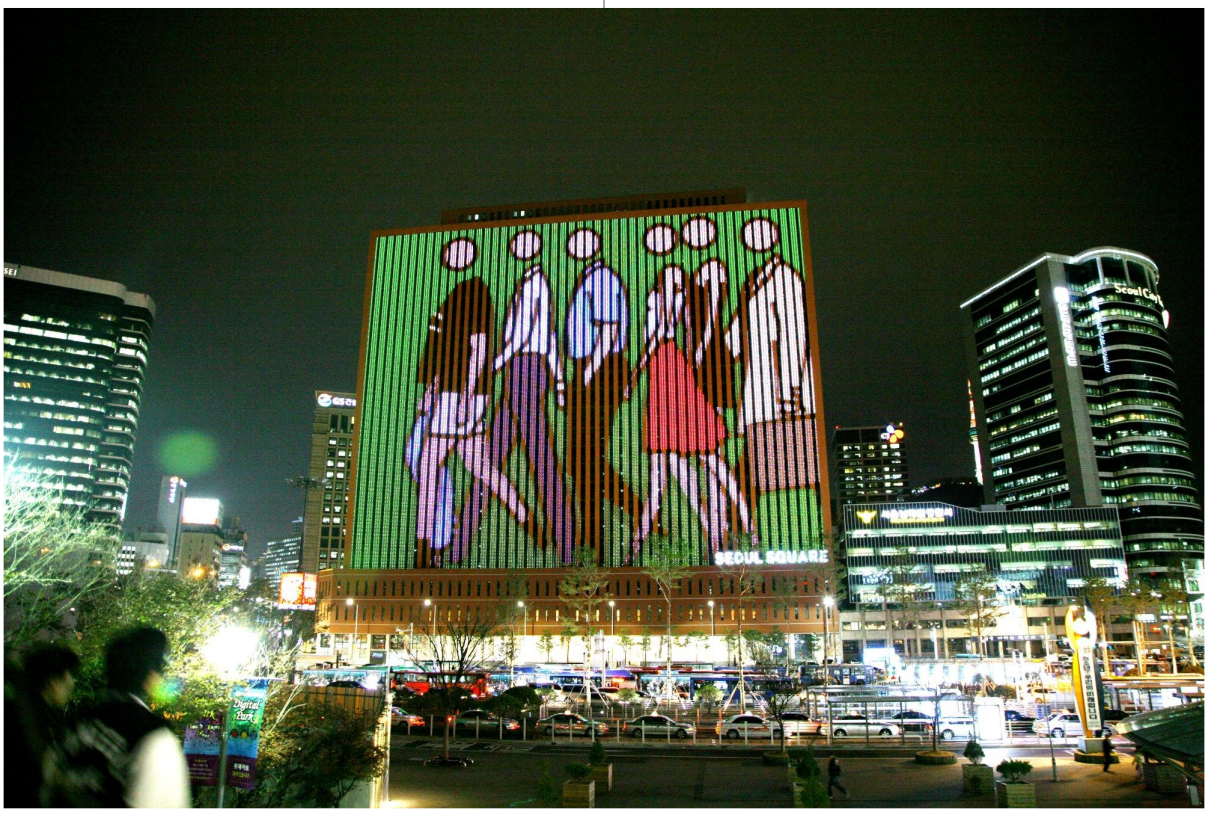
Julian Opie

해외 ARTIST 줄리안 오피

1958년생 영국

2024 / 05 / 17



<Crowd> LED벽에 설치 7,800×9,900cm 2009 한국 서울스퀘어

1983년 런던 골드스미스대학을 졸업한 줄리안 오피는 마이클 크레이그-마틴에게 미술을 배웠다. 1983년 리손갤러리 첫 개인전에서 우편엽서를 접합한 반입체적인 작품을 선보였다. 1985년부터는 단색으로 칠한 기하학적인 부품을 조합시킨 벽걸이 입체 시리즈를 선보이며, 미국의 네오지오처럼 미니멀한 형태로 사회적 함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. 점차 알루미늄, 스테인리스스틸 등 전자 제품을 모방한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형광등의 발광 상태를 조절하여 심리적 요소를 가미했다. 그는 다양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인물의 형태를 검고 두꺼운 아웃라인으로 그리고 검정색 원으로 눈을 표현하는 등 컴퓨터로 인물을 단순화한다. 또한 1990년대 이후부터 기호화된 인물을 자동차, 건물 등 도시의 구성 요소와 함께 그려 가상의 도시 공간을 만들어 냈다. 줄리안 오피는 2000년 영국의 모던락 그룹 블러의 앨범 커버를 담당하면서 대중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, 2005년에는 U2의 월드투어 무대에 LED-를 이용한 설치미술을 선보이기도 하였다. 국내에서는 2009년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비롯하여 2012년 이응노미술관의 <텍스트가 된 인간>전, 가인갤러리의 <몽타주>전, 롯데갤러리

영등포점의 <런던 산책>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. 2010년에는 서울 스퀘어빌딩의 발광 다이오드미디어캔버스에서 대형으로 작업을 선보였다.

* 이 기사는 2013년 1월호 특집 「What is Contemporary Art?」에 게재되었습니다.